애경산업-스퀴즈브루어리, '2080 이공팔공맥주' 출시

애경산업이 수제맥주 업체 스퀴즈브루어리와 손잡고 '2080 이공팔공맥주'를 내놓았다. 깔끔하고 개운한 벨기에 호가든 지방 밀맥주로, 효모 특유의 향을 살린 게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2080 브랜드에서 진행하는 '2080 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회사 측은 "브랜드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미래의 주력 소비층들과 교감하고 새로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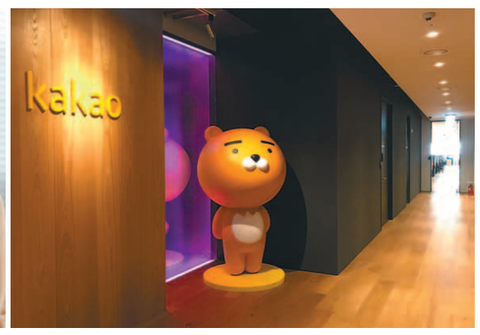


카카오, 연이은 악재에 주가도 하락

경영진 리스크에 플랫폼 규제까지 '사면초가'

19일 카카오·계열사 주가 하락세
액면분할 후 처음으로 9만원 아래로
경영진 논란 등으로 투자 심리 ↓
플랫폼 규제도 주가 악재로 작용





카카오의 주가가 연이은 악재로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의장(왼쪽)과 카카오 판교 오피스. 스포츠동아 DB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온 카카오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계열사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 논란 등 경영진 리스크가 불거진 데다가, 정부의 플랫폼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우상향하던 주가도 지속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엔 김범수 의장의 탈세의혹까지 불거졌다.

●카카오그룹 주가 일제히 약세

19일 카카오와 상장 계열사들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카카오는 이날 전일 대비 1.74% 떨어진 9만4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6월 최고점(17만3000원)을 찍은 이후 주가가 절반 가까이 빠졌다. 특히 이날 한때 주가가 8만7300원까지 떨어지면서 9만 원 벽이 무너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액면분할 후 카카오의 주가가 9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다. 시가총액은 40조3099억 원을 기록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연이어 하락 추세다. 카카오의 지난해 말 주가는 11만2500원, 시가총액은 약 50조 원이었다. 올해 들어 시가총액이 약 10조 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한때 3위(우선주 제외)까지 올랐던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도 8위까지 떨어졌다.

상장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전일 대비 4.48% 떨어진 12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뱅크는 4만1800원으로 3.46%, 카카오게임즈는 6만8000원으로 1.31% 하락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연이은 상장으로 한때 100조 원을 훌쩍 넘었던 카카오그룹 상장사의 시가총액도 80조 원대로 줄어들었다.

●"투자 심리 회복 쉽지 않을 것"

카카오 주가 하락은 미국 증시 등 대외적 불안요소도 작용했지만, 최근 불거진 경영진 리스크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장 한 달 만에 지분을 대량 매각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이른바 '먹튀 논란'이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지난해 12월 스톡옵션으로 받은 회사 주식 약 44만 주를 매각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고, 내부적으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겼다.

최근엔 김범수 의장의 탈세 의혹도 불거졌다. 경찰은 김 의장과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과정에서 80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카카오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에 나선 것도 카카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만들어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사 상품을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카카오에 집중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여당 대선 후보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역대급 기록' LG엔솔 공모주 청약, 증거금 110조원 시대 열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증거금 114조 돌파…역대 흥행
높은 경쟁률로 균등배정 물량 1주 전망
적정 시총가 100조 ~120조원 예상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 증거금 114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IPO 역사상 최대 흥행 기록을 썼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전경. 사진제공 |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청약 증거금 114조 원을 돌파하며 공모주 청약 역사상 최대 흥행 기록을 썼다. 국내 기업공개(IPO)에서 청약 증거금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대표 주관사인 KB증권, 공동 주관사인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와 인수회사로 참여하는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에서 집계한 일반 청약 증거금은 약 114조 6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이전까지 SK아이이테크놀로지(80조9017억 원)가 보유 중이던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 기록을 33조 원 이상 뛰어넘는 기록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마지막 공모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기록은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투자자 1명당 균등 배정 물량은 1주 안팎이 될 전망이다. 청약 건수는 442만4000여건으로, 중복 청약 금지 이후로는 최다 기록이다.

균등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신증권으로 1.75주다. 이어 하이투자증권 1.68주, 신영증권 1.58주, 신한금융투자 1.38주, KB증권 1.18주, 하나금융투자 1.12주, 미래에셋증권 0.02주 순이다. 배정은 추첨을 통해 진행되는데, 미래에셋 청약 투자자 10명 중 7명은 1주도 받지 못한다.

한편 앞서 14일 공시된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는 국내 기관 1536곳, 해외 기관 452곳 등 총 1988개 기관이 참여해 경쟁률 '2023 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코스피 기업공개 수요예측 역사상 최고 경쟁률이며, 전체 주문 규모는 1경5203조 원이다.

일정 기간(15일~최대 6개월) 동안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 의무보유확약 신청 비율은 77.4%에 달했다. 27일 코스피 상장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는 30만 원으로 확정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최종 공모 주식 수는 4250만 주, 총 공모 규모는 12조7500억 원이다.

상장 후 시가 총액은 확정 공모가(30만 원) 기준 70조2000억 원으로 삼성전자(468조 6279억 원)와 SK하이닉스(93조 9123억 원)에 이은 코스피 시총 3위에 해당한다. 증권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적정 시가총액을 100조 ~12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 SK하이닉스를 넘어 시총 2위에 안착할 가능성도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아 신형 니로, 사전계약 첫날 1만6300대 돌파

국내 SUV 중 최고 연비 20.8km/L
친환경 소재·실용적인 공간 인기



기아는 18일부터 사전계약에 들어간 친환경 전용 SUV 신형 니로(사진)의 첫날 계약대수가 1만63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세대 쏘렌토(1만8941대)에 이어 기아 SUV로는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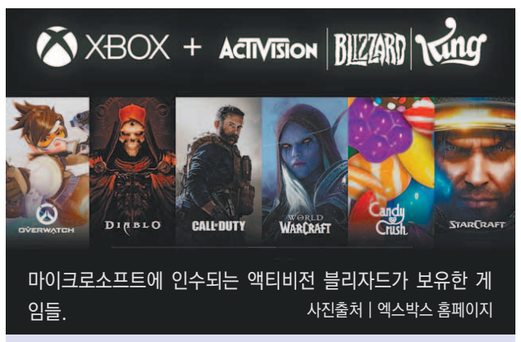
니로는 2016년 출시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에서 총 67만5798대(국내 13만1157대, 해외 54만4641대)가 판매되며 친환경 SU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아는 신형 니로의 인기 비결을 국내 SUV 중 최고 복합연료소비효율, 다양한 친환경 소재와 기술, 실용적인 공간 활용성,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사양 등으로 꼽았다.

신형 니로는 스마트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엔진과 32kW 모터를 탑재해 시스템 최고 출력(모터 출력 포함) 141마력을 발휘하며, 국내 SUV 중 최고 복합연비인 20.8km/L를 구현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솔린 SUV 중 20km/L대 연비(16인치 타이어, 빌트인 캠 미적용 기준)는 신형 니로가 유일하다. 또한 3세대 플랫폼 적용을 통한 커진 차체와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적용한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신형 니로의 사전계약은 스마트스트림 G1.6 하이브리드 모델 3개 트림으로 진행된다. 판매 가격은 ▲트렌디 2660만 원 ▲프레스티지 2895만 원 ▲시그니처 3306만 원(친환경차 세제혜택 및 개소세 3.5% 반영 기준)이다.

원성열 기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보유한 게임들. 사진출처 | 엑스박스 홈페이지

MS, 블리자드 82조원에 인수
메타버스 경쟁력 강화 나선다

전액 현금 매입…링크드인 이후 최대규모 인수
텐센트·소니 이어 게임기업 세계 3위로 올라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세계적인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를 인수한다. 8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빅딜이다. 블리자드는 국내에선 '스타크래프트'로 잘 알려진 게임사다. 게임 사업의 확장과 함께 '메타버스' 시장 공략을 위한 MS의 포석으로 분석된다.

19일 외신 등에 따르면 MS는 687억 달러(약 81조 9000억 원)에 블리자드를 인수하기로 했다. 블리자드 주식을 주당 95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빅딜은 2016년 MS의 링크드인 인수(262억 달러)를 훌쩍 뛰어 넘는 최대 규모다.

블리자드 인수로 '엑스박스'를 중심으로 한 MS의 게임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블리자드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 '디아블로', '콜 오브 듀티', '캔디 크러시' 등 전 세계에서 흥행한 인기 게임 지적재산권(IP)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MS는 앞서 2014년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지난해에는 '엘더스크롤'을 보유한 베데스다를 인수하면서 게임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왔다. 이번 블리자드 인수로 MS는 텐센트와 소니에 이어 매출 기준 세계 3위 게임 기업으로 올라선다.

게임 뿐 아니다. 이번 블리자드 인수의 더 핵심적 이유는 최근 급부상한 메타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사업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인수건과 관련해 "메타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MS와 경쟁하는 페이스북은 메타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하면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인재를 대거 영입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이유는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그룹 PwC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약 1조5000억 달러(18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도 해당 분야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전 세계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제트의 '제페토'가 대표적 예다. SK텔레콤도 '이프랜드'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사들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넥슨은 '프로젝트 MOD', 펄어비스는 '도깨비', 컴투스는 '컴투버스'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명근 기자

오리온 닥터유, 작년 연매출 680억…역대 최고



오리온의 종합식품 브랜드인 '닥터유'(사진)가 2021년 역대 최고 연매출을 달성했다.

닥터유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48% 성장한 68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2019년부터 '맛있는 건강'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며 '닥터유 단백질바', '닥터유 드링크' 등 다양한 라인업 구축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바 호두', '닥터유 드링크 카페라떼' 등 당 함량을 낮춘 제품도 선보이며 젊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